

2019 ICN 대표자회의 및 학술대회

싱가포르에서 개최 ... 한국 대표단 및 회원들 참석

간호교육-연구-실무 최신 경험과 정보 교류
간협, 정책활동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주력



2019 국제간호협회의 대표자회의 및 학술대회(ICN Congress and CNR 2019)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각국 간호협회 대표들이 참석하는 ICN 대표자회의(CNR·Council of National Nursing Association Representatives)는 6월 25~27일 열린다.

세계 간호사들이 모여 교류하는 학술대회는 'Beyond Healthcare to Health' 주제로 6월 27일~7월 1일 열린다. 7월 2일에는 싱가포르 보건의료시설 견학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표자회의에는 한국 대표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김영경 제2부회장이 참석한다. 학술대회(Congress)에는 간호대학 교수,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이 참가해 한국의 간호를 알리고 세계 간호사들과 교류하게 된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현안 관련 정책활동을 적극 펼치고, 각국 간호협회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소목도의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후보추진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친다.

◇대표자회의(CNR)= ICN 의결기구인 대표자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 추진한 주요사업 시행결과를 보고하고, 간호현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아네트 케네디(Annette Kennedy) ICN 회장과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ICN 사무총장이 보고한다. 주요 정책활동, 세계 간호사 응호활동, 간호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 낄싱 나우 캠페인,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 활동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게 된다.

내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맞아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을 '세계 간호사 및 조산사의 해'로 지정할 것에 대한 결과보고도 진행된다.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낄싱 나우 캠페인 등에 대해 심층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학술대회(Congress)= 학술대회 개최식은 6월 27일 오후 6시(현지 시각) 마리나 베이 샌즈 컨벤션센터 5층에서 열린다. 130개국 5000여명의 간호사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각국 간호협회 대표단이 민속의상을 입고 입장하는 퍼레이드가 펼쳐지며, 싱가포르 간호협회가 준비한 문화공연이 진행된다. ICN이 수여하는 '김모임 간호혁신 및 정책영향력상' '파트너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국제재단에서 수여하는 '국제간호대상' 시상식은 6월 30일에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간호교육·연구·실무분야에서 세계 간호사들의 경험과 최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기초간연과 메인 세션, 컨퍼런스 세션, 정책카페, 연구논문 포스터 발표 등이 진행된다.

특히 매일 오전 9~10시 열리는 기초간연에서는 세계보건기구 간호정책수석인 엘리자베스 아이로(Elizabeth Iro), 김환식 전 대한민국 국무총리(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추진위원장), 간호인력 배치수준 관련 세계적인 권위자인 린다 에이큰(Linda H. Aiken) 펜실베이니아대 교수가 연자로 나선다.

전시부스 오픈 리셉션에서는 1899년 창립된 ICN이 올해로 120주년을 맞이했음을 자축하는 시간이 함께 마련된다.

세계간호학사대회는 6월 26일 싱가포르종합병원 아카데미에서 열린다. 대한간호협회에서 선발해 지원한 간호대학생 3명이 참석한다.

폐회식은 7월 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어 7월 2일에는 싱가포르 보건의료시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정규숙·주혜진 기자

ICN 대표자회의 및 학술대회 기사는 7월 11일자 신문에 게재됩니다.

방문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실시

부담청구 예방 및 자율시정 유도

보건복지부는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시를 사전예고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5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방문서비스 기관에서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이다.

RFID 관련은 △시작만 전송, 종료는 미전송 △주중에는 사용, 주말에는 수기기록지 작성 △다수의 수급자 중 특정 수급자에게만 수기기록지 작성 등 3개 유형이다.

비정상적 청구행태 관련은 △요양보호사 1명이 다수의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가족인 요양보호

사가 본인 가족이 아닌 다른 요양보호사의 가족에게 교차서비스 제공 등 2개 유형이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복지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했다.

박찬수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재정관리팀장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담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부담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

간호협회 대표자회의 ... 간호현안 논의

대한간호협회는 대표자회의를 6월 20일 개최했다. 대표자회의에는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임원진,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과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동안의 사업시행결과 및 회계보고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보고했으며, 간호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경림 회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한 것에 대해 브리핑했다.

먼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엘리자베스 아이로 WHO 간호정책수석(Chief Nursing Officer)이 공식적으로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박능후 장관이 내년에 열리는 CNO 글로벌 포럼에 한국에서도 참석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네트 케네디 ICN 회장과 의 미팅에서 한국에서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이 발의됐음을 알렸고, 이에 대해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ICN에서 적극 지지하겠다는 답을 들었다. 아네트 회장은 소목도의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활동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간호역사뿌리찾기]

'대한간호(속간1호)' 다시보기 ⑤-2

대한간호협회가 1953년 6월 26일 발간한 잡지 '대한간호(속간1호)'에 실린 글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원문(국·한문 혼용)을 서지학자가 한글화한 버전으로 게재하며, 간호사 명칭은 당시 불렀던 그대로 간호원으로 실었습니다.

*아래의 글은 당시 한신광 조산원회 임원(초대 보건간호원)이 '30여년 전 간호원의 생활을 회고함'이란 제목으로 쓴 글을 요약한 것이며, 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학생 간호원도 환자 보는 일 맡아서 해 겨울 밤엔 때는 숨을 넣은 두루마기 입어 성대한 졸업식날 천사같이 기록해 보여

1학년이 되어서 낮에 몇 시간씩 교실에 들어가서 간호학, 위생학, 해부학, 영어, 한문, 기타 과정을 배우게 되었다. 학생이라고 하여도 하루 다섯 시간을 공부하면, 다섯 시간은 일을 하게 되었다.

밤번을 보게 되면, 상급생 1명과 하급생 1명의 두 사람을 밤간호원으로 정하여 준다. 한 달 동안 낮이면 자고, 밤이 되면 저녁 7시에 들어가 아침 7시에 나오게 된다. 잠이 안와도 낮에 자는 시간에 꼭 드러누워 있어야만 되는 규칙이다.

밤근무 시간에는 절대로 자서는 안 된다. 12시간을 꼭 서서 돌아다니면서 밤을 새워야 된다. 졸다가는 수시로 순회감독하는 간호원에게 발견되면 벌을 받게 된다. 나 홀로 단잠을 못자고 환자들을 위하여 밤을 새우는 것을 생각할 때 견디기 어려운 충동을 주는 때도 한 두 번이 아니었고, 명랑한 달빛 아래 고향 생각을 하고 눈물 지은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겨울 밤엔 불 때 입는 밤 두루마기가 있는데, 조선 두루마기보다가 숨이 많이 들어 만들었다가 겨울에 입는다. 밤 두루마기를 입고 캄캄한 병실을 다니다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면 귀신 만난 것처럼 깜짝 놀랄 지경이다.

흔히 환자는 밤중에 죽는 일이 많다. 밤에 환자가 죽으면 반드시 소독하여서 흠이불을 섞어 병풍을 쳐서 두었다가, 이튿날 아침에 시체실로 옮겨간다. 밤에 시신이 병실에 있으면, 왜 그리 무서운지, 그래도 맑은 임무요 직책이 있는지라, 환자실에서 종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아니 가보면 안 된다.

2학년이 되면 상급생이라고 하여서 하급생을 시키고 좀 편하게 된다. 학생 간호원이라고 환자 보는 일을 전부 맡아서 보게 되어 학생 노릇만 하지 않고, 실제 간호원 생활이 더 많았다.

3학년 졸업 시까지는 꼭 매일 12시간 번을 서게 되고 근무를 하게 되었다. 규칙이 어찌나 엄하든지, 윗간호원 명령이면 복종이다. 졸업식 날은 흰 유니폼을 갈아입고 흰 갖에 검은 테를 두르고, 조선 미투리라고 하는 삼을 가지고 만든 흰 신을 신고, 예배당에 가서 졸업식을 하게 된다. 꼭 결혼식이나 하는 것처럼 장하게 한다. 손님도 많이 오고, 순서도 많이 만들어서 아주 성대하게 식을 거행하게 된다.

흰 복장에 흰 장갑을 끼고 흰 갖에 흰 신을 신고 일제히 서서 졸업장을 흰 손에 받아 들고 있는 것이 천사같이 기록하여 보였다. 졸업식이 끝나면 반드시 서양 원장 책에서 초대를 하여 양식으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 전례였다.

* 문의사항 : 일산병원 인사팀 (031-900-0051)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2020년 신규간호사 모집

국민의 건강한 삶과 올바른 의료문화를 선도하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함께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전형안내

응시자격	2020.2월 간호대학 졸업예정자로서 2020년도 간호사 면허증 취득예정자
접수기간	2019.7.8.(월) ~ 2019.7.22.(월) 17:30까지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www.nhimc.or.kr) * 응시원서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 홈페이지 참조
전형방법	서류심사 → 필기시험 → 인성검사 → 면접 → 신체검사 → 임용

복리후생

- 교육전담간호사, 야간전담간호사, 정맥주사전담간호사, 상치장무전담간호사 등 간호업무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간호업무 분업화(일반간호 업무량 경감)
- 임신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 육아휴직 자녀 당 3년 부여(근속기간에 포함)
- 신입 및 재직 간호사에 대한 멘토링 지원 시스템 구축
- 인근거리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학자금 무이자 대출, 복지포인트 제공, 진료비감면, 하계휴양소 운영, 직원주차장 운영, 원내 동호회 활동비 지원, 직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고위과정, 연차별 교육 등), 각종 진료비 지원제도 등